



◀20

## Sex에도 위험이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물질적인 욕구도 그렇지만 성적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만 따지는 마음 때문에, 가끔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어느 날, 밤 잠을 깨우는 전화가 응급실에서 걸려 왔다. 사실, 비뇨기과 환자로 응급실 신세를 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전화가 걸려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긴박한 상황이었다.

“급합니다, 선생님”

“급한 건 나도 알겠어요. 무슨 일인데?”

“골절상입니다. 출혈이 심해요.”

응급실에 급하지 않은 환자가 어디 있고, 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의료진이 어디 있을까 싶을 것이다. 그러나 훈하지도 않고 빼도 없는 음경이지만 발기시에 일어나는 음경 골절상엔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대강의 응급조치를 지시한

다음, 병원으로 뛰었다.

상태는 상상 외로 심각했다. 음경의 피하에 너무 많은 핏덩어리가 고여 있어서,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우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완전히 파열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시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서둘러 응고된 핏덩어리를 제거하고 보니, 음경의 뿌리 부분에 있는 백막이 2cm 이상이나 파열되어 있었다. 출혈은 계속되어 해면체 속의 조직이 노출되어 있었다. 먼저, 항생제와 생리 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관류시켜서 씻어내고, 백막 파열 부분을 흡수되는 실로 퀘매는 것으로 수술을 마쳤다.

수술도 수술이지만, 만약 이 부분에서 자칫 염증이 생길 경우, 완전히 발기 불능이 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염증 예방에 정성을 기울였다.

“정말 꽤찰습니까? 꽤찰은 거예요?”

사색이 된 아내가 더 엽려스런 표정으로 물는다.

“수술은 성공이니까, 염증만 생기지 않으면 회복은 금새 될 겁니다.”

수술 후 1개월을 기다린 뒤에 회복 상태를 알아보느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시청각 자극검사(AVS-Penogram)를 해봤다. 발기된 상태에서 을결내의 혈류 변화를 검사해 보니, 정상이었다.

앞으로 수술부위의 섬유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페이로니씨병'이라는 병이 되기 쉽고 이때는 발기 시에 음경이 많이 구부러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병만 합병되지 않으면 그대로 완치된 것이다.

결혼 5년차의 30대 직장인. 첫 아이도 제법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권을 찾기 시작하자 어설

폈던 부부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했단다.

J씨 역시 선행위에 몰입해 있다가 좀 더 강한 자극을 받고 싶어서 무리하게 체위 변동을 시도했다가 골절상을 입은 경우다. 음경이 발기된 상태에서의 무리한 체위 변동이나, 격렬한 선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 J씨처럼 ‘똑!’ 하는 소리를 내며 음경이 부러져 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짚은 부부들이다. 욕심을 부려서도 그렇겠지만 성지식이 부족한 사춘기 학생들의 과격한 자위행위나 기괴한 체위를 시도하는 짚은이들의 오랄섹스엔 영락없이 병원신세를 지게 되는 것이다.

섹스는 선택이지만, 건강은 필수 사항이다. 어떻게 리드하는가에 따라서 환상적이고 위험한 길로 양분되는 것이다. 77

## 니코틴 중독의 자가진단테스트

21



〈집단방법〉

- ▶ 가 : 0점 나 : 1점 다 : 2점
  - ▶ 5점이상 : 니코틴 중독이 매우 심하여,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예민·초조·불안·불쾌감·피로·부주의·집중력 약화·니코틴에 대한 열망·우울·식욕증가·무기력·만성피로·심적 동요·악몽 등의 금단증상을 나타낸다.
  - ▶ 4점이하 : 니코틴 중독은 심하지 않지만 약간의 금단증상을 경험하며, 증상에 따라 의학적 요법 필요.